

“텔레비전에 책이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출판관련 방송프로그램 점차 늘어... 방송시간 편성과 책선정 문제가 걸림돌

좋은 책을 만드는 일만큼, 좋은 책을 알리는 일도 중요하다. 지금까지 일간지의 출판 관계 기사와 서평전문지·출판정보지에서 다루는 신간소개 및 서평 등 인쇄매체를 통해 책을 소개하는 일이 일반적이었다면, 영상매체가 뉴미디어로 부상하고 있는 요즘 영상매체에도 출판정보 프로그램이 점차 확장되어 가고 있다.

TV 정규 프로그램은 'TV책방'이 유일

《출판 마케팅》(자작나무)을 펴낸 한기호씨는 “신간이 나오면 언론사, 방송사, 출판평론가들에게 책을 보내 다각적인 홍보를 기해야 한다”고 한다. 방송에 흘러나온 책소개와 여론 지도자들의 책소개는 과급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방송에서 책정보를 다루는 프로그램은 각 뉴스나 정보 채널의 프로그램, 문화 전문 프로그램에 한 코너를 마련해 신간

출판방송의 가장 큰 문제점은

프로그램이 사실상 청취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시간대가

많다는 것이다. 또 진행자들의

전문성 결여나 선정되는 책이

대부분 가볍고 너무 대중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을 다루는 식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규 뉴스 시간에도 꽤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 몇몇 독립적인 책정보 프로그램도 생겨 예전에 비해 관련 프로그램이 많이 늘었다.

각종 프로그램의 코너를 제외하고 명실공히 출판방송에서 제몫을 하는 프로그램을 꼽자면 KBS 텔레비전의 'TV 책방'과 KBS 라디오의 '책마을 산책' 등을 들 수

책소개가 있는 방송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연출자	진행자	방송시간
KBS	TV책방	노동렬	이주향	일요일 오전 6시30분~7시
	책마을 산책	안경은	김종찬	일요일 12시 15분~2시
	생방송 오늘	김천웅	윤흥기	매일 오후 6시~8시 중 부정기 코너
	문화살롱	정초영	이원섭	매일 오후 10시5분~55분 중 부정기 코너
	라디오독서실	조원석	김선학	일요일 아침 6시 5분~10분
	라디오 동서남북	정종현	송지현	매일 오전 10시5분~11시50분 중 부정기 코너
	라디오 정보센터	이수익	박찬숙·김영수	토요일 1시20분~2시 사이
	가로수를 누비며	박천기	배한성·윤영미	매일 아침 6시30분~9시 중 부정기 코너
행복만들기	이희옥	임동진·이지연	매일 아침 9시~11시 중 부정기 코너	
한밤에 만난사람	이연희	이호재	매일 자정~새벽 1시 중 부정기 코너	
MBC	독서와 인생	하지현	정은임	일요일 7시 15분~8시
SBS	시인의 마을	김영우	김재홍	일요일 아침 6시 10분~7시, 자정~새벽 1시
	팝스 예스터데이 '책 읽어주는 남자' SBS뉴스대행진 '김영수의 책방 나들이'	박문영 전영표	임국희 전여옥·정홍택	일요일 11시 30분~12시사이 매일 오후 5시 45분~6시 30분
CBS	이주일의 신간	박철	홍인기	일요일 오후 5시 50분~6시
	양희은의 정보시대	이재호		매일 오전 10시 5분~10시 30분
불교방송	날마다 좋은날	조상호	하재봉	매일 오전 10시20분~11시10분중 1회
인천방송	7시 뉴스	김미애	김미애	일요일 아침 7시~7시 5분
	'이주일의 불만한 책' 김영수의 책방산책	신하연	김영수	금요일 오전 7시 30분~7시 45분
EBS	책나라 여행	이협희	유선애·정석희	일요일 오후 3시~4시
	책과의 만남	한인숙	미정	토요일 저녁 9시 40분~10시 20분(3월부터 방송예정)



수원대 이주향 교수가 진행하는 KBS의 'TV 책방'.

있다. 공중파 방송 중 유일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TV 책방'은 최근 새로운 연출자와 함께 변화를 꾀하고 있다. 문학작품을 영상화하는 '작가와 화제작'은 작품의 분위기와 내용을 살리면서 재미를 유도하는 새로운 시도다. 2월에는 조경란의 《불란서 안경원》과 한승원의 《포구》가 방영될 예정. 아울러 사회 각분야의 명망가들에게 인생의 지침이 된 책, 학문의 계기가 된 책들을 다루는 '이 한 권의 책' 코너 등으로 구성된다.

“공영방송에서 방영할 만한 프로그램이 KBS 2TV에 방영된다는 것 때문에 편성 조정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교양 프로그램으로서 적절한 채널, 대중과 만날 수 있는 시간대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슈화된 상태”라고 담당 PD인 노동렬씨는 말한다.

벌써 4년째 계속되고 있는 라디오 프로그램 '책마을 산책'도 그 연문만큼 충실한 프로그램이다. 매주 일요일 12시 15분부터 2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매주 2, 3권의 책을 읽는다는 안경은 PD의 연출과 전 평민사 대표인 전문 MC 김종찬씨 등 제작진이 책에 대해 애정을 갖고 진행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소설을 드라마로 각색하여 방송하거나 저자와의 인터뷰 등 다양한 구성을 시도하고 있다.

일요일 아침 7시 15분에서 8시까지 방송되는 MBC 라디오의 '독서와 인생'도 출판전문 프로그램이다. 정은임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책소개와 저자 인터뷰 등이 방송된다. 담당 PD인 하지현씨는 “직접 책을 선정하고 인터뷰 대상을 섭외한다. 출판사와 저자의 협조로 작업이 그다지 어렵지는 않다”고 밝힌다.

SBS 라디오가 벌이고 있는 연중 캠페인

도 출판계와 독자를 이어주는 뜻깊은 행사다. 지난 연말연시에 각 대형서점과 함께 '연말 연시-책으로 인사합시다'는 캠페인을 벌여 좋은 반응을 얻은 SBS 라디오는, 박차를 가하여 '세뱃돈을 책으로 줍시다' '발렌타인 데이 선물을 책으로 합시다' 등 시절에 맞는 캠페인을 계속할 계획이다. 그 외 초등학교 생을 대상으로 한 EBS '책나라 여행'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EBS '책과의 만남'이 전문적으로 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출판 방송의 전문성 필요

전문 출판평론가의 원조로 꼽히는 사람은 서울신문 논설위원인 이종한씨. 최근에는 권영빈 중앙일보 논설위원이나 수원대 이주향 교수, 시인 하재봉씨와 원재훈씨같은 문화계 인사들이 출판 관련 프로그램을 맡고 있고 김영수·강철주·최태원씨 등 출판평론가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대부분 출판계나 관련 잡지, 신문에 몸담았던 사람들이다. 현직 일간지 출판담당 기자들의 활동도 눈에 띈다. 교보문고 정석희 전 홍보과장, 김소영씨, 위성계씨, 진술문고 연용호씨 등 대형서점 직원이 출판과 서점계 동향을 전하기도 한다.

“방송이 끝나고 나면 그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다. 청취자들의 책에 대한 문의 전화가 빗발친다. 때로는 '왜 특정 출판사의 책만을 소개하느냐'는 출판사 쪽의 반박 전화가 오기도 하는데, 2만여 개가 넘는 출판사의 책을 골고루 안내해서 다뤄 주기는 어렵다.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 국내 저작물과 작은 출판사 위주로 소개하고자 애쓴다”고 김영수씨는 방송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출판방송의 가장 큰 문제점은 프로그램이 사실상 청취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시간대가

노대가의 삶과 생각 엿보기

민두기 지음 《한 송이 들꽃과 만날 때》를 읽고

윤혜영 · 한성대 사학과 교수

많다는 것이다. 프로그램 대부분이 새벽 시간이거나 토요일 아침 7시, 일요일 오후 1시 등 시청률과 청취율이 가장 적을 법한 시간대에 편성되어 있다. 자본의 논리 때문에 황금시간대에 방송될 수는 없겠지만 좀더 많은 독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시간대를 할애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한 선정되는 책 대다수가 가볍고 대중적인 것이라는 점도 문제다.

“아무래도 방송의 특성상 책선정이 대중적인 것,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 위주로 흐른다. 일반 직장인, 주부, 청소년을 안배할 때 어쩔 수 없다”고 인천방송 교양제작팀 구성작가인 진명희씨는 말한다. 청취자가 각양각색인 것은 사실이지만 출판에 임하는 사람들이 ‘방송에 적합한 책은 가볍고 재미 있는 책’이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출판평론가들이 틀을 깨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도 자성해야 한다. 방송국에서 책선정에 간섭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나 출판평론가라면 전문성을 가지고 연출진과 독자를 설득해야 한다. 문학만큼은 문학성 지닌 작품을 소개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가”라고 CBS의 구성작가 이수진씨는 말한다. 사실 전문가라면 가볍지 않은 좋은 책을 독자들이 소화할 수 있게 설명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진행자들이 일반 아나운서들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꼽힌다. 일반 아나운서나 스타급 인물을 내세우다 보니 출판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쉬운 해설, 토론문화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좀더 전문성을 가진 패널이 보강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문적인 패널이나 출판소개를 맡을 전문 인력이 태부족한 상태에서 인력양성과 정보교환의 창구도 필요하다는 점도 제기된다.

또한 방송 프로그램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지나치게 어렵고 지루하면 시청자가 흥미를 잃으므로 패널의 강약이 필요하다. 출판 저널리스트와 전문가가 함께 자리한다면 전문가는 대안을 제시하고 저널리스트는 독자들의 욕구와 현실을 부드럽게 반영하여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마정미 기자

올 2월에 서울대 동양사학과에서 정년을 맞이하는 민두기 교수는 국내의 역사학계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분이다. 그동안 중국 근현대사 연구에서 독보적 업적을 내놓아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수많은 제자들에 대한 혹독한 훈련과정이 문자 그대로 독보적인 것임은 학계에 널리 알려진 대로이다.

지금까지 필자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직접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 분의 혹독한 훈련과정의 이면에 있는 따뜻한 인간미를 느낀 적이 있기는 했지만, 이번에 정년을 앞두고 저자가 스스로 엄선한 수필집 《한 송이 들꽃과 만날 때》를 읽고는 이전에 미처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쳤던 노대가의 삶과 생각의 일단을 엿볼 수 있어 반가웠다.

이 자전 수필선은 저자가 머리말에서 밝혔듯이 기왕에 발표된 수필 중에도 눈설 냄새가 나는 것은 빼고 생활과 연관된 것을 뽑고 일부는 새로 쓴 것이기 때문에 특히 저자의 삶의 단면들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1부의 자전수필에서는 자신의 스승들에 대한 회고, 자전, 암사동 시절, 어린 시절, 중학교와 대학생활, 대학강단 시절, 노경의 감회, 책에 관한 이야기 등으로 세분하여 저자의 어린 시절부터 정년을 앞둔 최근의 감회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와

제자들에 대한 혹독한

훈련으로 유명한 민교수의

수필집에는 이전에 미처 느끼지

못했던 따뜻한 인간미가

드러나 있다. 일제 때부터

해방전후 시대의 기록은

한 개인의 시대의 역사이기 전에

격동기 우리나라 역사의

일면에 대한 중요한

증언으로 읽힌다.

지적 편력 및 스승에 관한 이야기까지 담고 있어 저자의 인간적인 면모 뿐 아니라 여느 생활수필과는 다른 지적인 내용이 물씬하다.

저자의 엄격한 면모, 곧 정면의 모습만을 보아온 독자들은 외갓집 잠실에서 태어나 승어알의 구수한 내용으로 외갓집의 환대를 추억하는 저자의 어린 시절을 읽으면서 ‘아, 이분에게도 이런 어린 시절이 있었구나’ 하고 미소짓게 된다. 그리고 저자의 스승에 대

한 회고 부분에서는 ‘이 분 뒤에는 이렇게 훌륭한 스승들이 계셨구나’ 하는 감명을 받게 된다.

그러다가 정년을 앞둔 저자의 감회가 서려 있는 <교정의 마지막 시간들>이라든가 비명

에 희생된 중학시절의 선배가 남긴, 공부 열심히 하라

는 당부

이야기



윤혜영 교수.

를 접하게 되면 그만 숙연한 감정에 젖게 된다. 암사동 시절의 이야기에선 삶을 바라보는 저자의 고즈넉한 시선이 담담히 그려져 있다.

일제 때부터 해방전후를 거쳐 전쟁기에 이르는 저자의 학교생활이 배어 있는 기록들은 그 시대를 겪지 않은 필자 같은 독자들에게는 일종의 과거 생활사의 재현으로 여겨질 만큼 여러 가지로 흥미로운 내용이 많다. 한 개인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격동기 우리나라 역사의 일면에 대한 중요한 증언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저자 스스로 편찬한 연보를 수록한 제2부와 대학 강단시절의 기록, 그리고 책에 관한 이야기들은 역사학자로서 저자의 성장과정이 요연하게 드러나 있다. 이들 기록은 그 자체로서 우리나라 중국사 연구의 발전과정을 더듬는 데 중요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으며 또한 필자같이 우둔한 제자에게는 소리 없는 힘찬 채찍으로 느껴진다. ❖

지식산업사/A5신/332면/9000원

